

Toshiba, 손가락 크기 연료전지 개발

무게 8.5g 불과한 세계 최소형 ... 전극 매개체를 미립자화해 크기 축소

일본 Toshiba가 엄지손가락 크기의 세계 최소형 연료전지를 개발했다고 6월25일 발표했다.

개발된 초소형 연료전지는 가로 2.2cm, 세로 5.6cm, 두께 4.5-9.1mm의 크기로 무게는 8.5g에 불과하지만 오디오 플레이어 등 소형 전자기기용으로 20여시간 연속사용이 가능하며 2005년 실용화될 예정이다.

Toshiba는 2003년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손바닥 크기의 연료전지를 개발한 바 있으며, 전극 안의 매개체를 미립자화함으로써 크기를 더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형 연료전지는 전압 유지 등이 불안해 아직 전면적인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6/28>